

연대·희생의 광주 정신...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

제46주년 5·18

오늘 오전 11시 민주광장서 기념식
3천여명 초청...중계 LED '열린행사'
옛 전남도청 개관 기념 국기계양식
공법 3단체장 '오월의 염원' 선포도

다시 돌아온 5월. 제46주년을 맞은 올해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더 뜻 깊게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하며 오월 광주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될 것이라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분 없는 정쟁으로 인해 또 다시 무산돼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다.

▶관련기사 2·8·9면

이 같은 상황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제22대 국회 후반기 시작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도 대거 광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로드맵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은다.

17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한 올해 기념식은 19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연대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일상에서 모두 함께 이어가며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념식 초청자는 5·18민주공화국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 3천여명이다.



민주평화대행진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지난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를 외쳤던 가두행진을 재현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다만, 금남로 방면에 중계 LED가 설치돼 초청장이 없어도 누구나 기념식을 함께할 수 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 및 헌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약 50분간 거행된다.

국민의례에서는 원형 복원된 옛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하는 국기 계양식이 진행된다.

국기 계양에는 고(故) 윤상원 열사의 조카 이승주씨와 윤동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영희 오월 안해설사가 함께하고, 경례문 낭독은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씨가 맡는다.

주제 영상은 1980년 5월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과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후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장들이 '오월의 염원'을 선포한다.

기념사에 이어 기념 공연 '오월의 기억'은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시와 소설, 일기를 배우와 극단이 함께 낭독하며 오월 정신을 기린다. 공연에는 5·18민주유공자인 고(故) 박효선 열사가 주축이 돼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함께하며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옛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공연도 선보인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막이 오르며 북과 장구의 합주 속 복원된 옛 전남도청이 베일을 벗고 공개된다. 이어 옛 전남도청에는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며 80여명의 무용수가 'K-민주주의의 계승'을 내용으로 공연한다. 이후 모든 참석자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 위에서 있다"며 "올해 기념식을 통해 오월 광주가 피워

낸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억·계승하는 것은 물론, 그날의 의로운 정신이 우리 국민 모두를 하나로 묶는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16-17일 금남로와 광주 곳곳에선 오월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주말·휴일과 맞물려 시민단체와 전야행사 모두 이틀간 진행됐고, 마라톤 열풍에 힘입어 5·18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를 지나 전남도청까지 달리는 특별기획 사업 'RUN5·18-도청가는 길'이 처음으로 추진돼 눈길을 끌었다. /안재영 기자

광주·전남 80명 무투표 당선...地選 의미 퇴색

6·3 지방선거 D-16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 등 총 80명이 단독 입후보, 무투표로 당선돼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더불어민주당 1당 독점 구조 속에서 사실상 선거 때마다 '무경쟁 당선'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5·6·7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총 77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국민의힘 이정현·진보당 이종욱·정의당 강은미·무소속 김광만 후보 등 5명이 등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는 강숙영·이정선·장관호·김대중 후보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광주 10명, 전남 63명 등 총 73명이 등록했으며 구례군수 후보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의원에는 128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기초의원 후보는 광주 99명, 전남 364명이 등록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5명,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광주 18명, 전남 59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

더불어민주당 1당 독점 구조 속

기초단체장 2명·특별시의원 34명

기초 20명·비례 24명 '무혈 입성'

유권자 '지역 일꾼' 선택권 박탈

전남·광주서 총 775명 후보 등록

표 24명 등 총 80명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후보와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김이강 후보는 재선, 김병내 후보는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광역의원은 광주 5개 선거구와 전남 29개 선거구 등 총 34명이 본선거 없이 당선됐다.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광주 24명·전남 59명) 대비 각각 20.8%, 52.7%가 '무혈 입성'한 셈이다.

광주 무투표 당선자는 노진성(동구 2)·강수훈(서구 1)·심철의(서구 4)·박상길(남구 2)·이귀순(광산구 4) 후보다.

전남 무투표 당선자는 최선국·박문옥·최정훈(목포), 서대현·문갑태·이석주(여수), 한춘옥·김진남·신민호·김영진(순천), 이재창·최명수(나주), 임형석·김장권(광양), 박준엽(담양), 정기성(장성), 김송식(구례), 송형곤·박선준(고흥), 임용민(보성), 하성동·류기준(화순), 박재선(완도), 박성재(해남), 이행도·손남일(영암), 고성석·이

정운(무안), 김문수(신안) 후보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각각 3명을 선출하는 광주 북구 다선거구에서 김영순·이재봉·최기영 후보가, 광산구 라선거구에서 윤영일·이우형·김명숙 후보가 등록해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박승경·박용식·박희상(목포), 김철민·박성미(여수), 류동철·박경석·한승욱·박규대·송중화(고흥), 김세윤·임원희(완도), 강대성·김용배(신안) 후보가 무투표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광주 동구와 구례·화순·강진·영암·무안·함평 등에서 단독 등록이 이어지며 총 24명이 경쟁 없이 당선됐다. 특히 무투표 당선자 80명 중 7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에서는 진보당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라선거구)가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차 운영과 거리 유세, 벽보·현수막 게시, 공개 연설 등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도 다시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이나 무더기로 나온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지역 일꾼을 뽑을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결국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재·변진기자

2026 now 나주 나주방문의해

22회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양귀비꽃 미식 대향연

2026 05.22.(금) - 24(일) 3일간

나주 영산포 단치체육공원 양귀비꽃밭 일원

홍어(국내산35% / 수입산50%) 할인
한우30% 할인
상설 할인판매장 운영

주최·주관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

초대가수



22일(금) 류지광



23일(토) 신승태



24일(일) 박서진